



ELLEphotography

MY Marilyn

포토그래퍼 로렌스 쉐러는 마릴린 먼로가 죽기 두 달 전 그녀의 얼굴을 렌즈에 담았다. 한 번도 공개된 적 없었던 사진들이 50년 뒤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된다. 마릴린 먼로와 함께한 생애 마지막 촬영현장에서의 기록.

photographer LAWRENCE SCHILLER writer JOHANNES BONKE, SVENSCHUMANN editor 김나래

포토그래퍼이자, 영화감독인 로렌스 쉐러(Lawrence Schiller)가 처음 마릴린 먼로를 만난 건 영화 <사랑을 합시다 Let's Make Love>(1960)의 촬영장에서였다. 그 후 2년간 그녀를 전담하는 포토그래퍼로서 역사적인 작업이 시작됐다. 당시 그의 나이가 23세, 마릴린은 이미 대스타로 군림하던 때였다. 쉐러는 그녀를 통해 사진가로서 명성을 꿈꿨으며, 마릴린은 그의 사진을 통해 세상을 매료시킬 이미지를 얻으려 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50주년이 되는 해, 쉐러는 마릴린의 마지막 두 작품에서 찍었던 미공개 컷들을 공개했다. 36세라는 젊은 나이로 요절한 여배우,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은 죽음과 가장 근접한 이미지, "마릴린은 꼭 상처받은 어린아이 같았다. 내내 불안한 아이처럼 안절부절 못했다." 공중인으로서 그가 기억하는 마릴린 먼로의 삶은 공중그네처럼 불안했다. 정신병원에 수감된 어머니와 자살한 아버지와 떨어져 양부모의 집을 전전했던 어린 시절은 확실한 트라우마가 되어 그녀 뒤를 화살표처럼 쫓았다. 세기의 아이콘이자, 섹스 심벌, 그리고 만인의 여인은 결코 어느 누구의 '여인'도 될 수 없던 사실에 끝내 좌절했다. 내내 사랑을 갈구했지만 어디에서도 원하는 걸 찾지 못했던 여자. 차라리 컴컴한 어둠이 편안하고 익숙했던 여배우는 마침내 심연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채 영원히 잠들었다. 한 마리 새처럼 홀연히 날아간 마릴린 먼로. 사후 50주년을 기념해 <마릴린과 나 Marilyn & Me>를 발간한 로렌스 쉐러가 미처 공개되지 않았던 그녀의 이미지들을 펼쳐보았다. 그가 뜨거웠던 전성기, 차갑기만 했던 전설의 여배우에 대해 <엘르>에 털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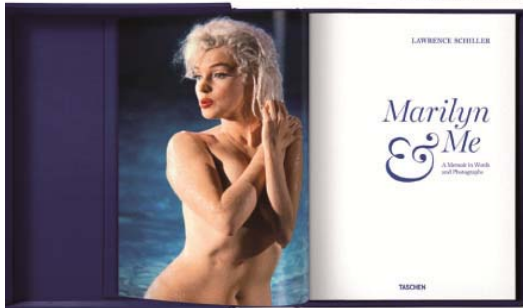
마릴린 먼로를 만났을 때 사진에 대해 얼마나 경험이 있었나. 당신은 불과 23세에 불과했는데? 너무 어렸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부분이 무지했다. 여배우를 촬영하는 것에 대해선 그녀보다 몰랐을 정도니까. 영글에 한해서 마릴린이 나보다 한 수 위였다. 하지만 1962년까



지 트럭 몇 대분의 사진을 찍을 정도로 많은 양을 작업했다. 덕분에 조명에 관한 책을 썼고 '미국 전국사진기자협회(National Press Photography Association)'에서 주는 상까지 받을 수 있었다. 꽤 자신감이 넘쳤던 시기다. 그로부터 10년 뒤엔 직접 사진과 필름을 제작하고 연출하기 시작했다. 운 좋게 오스카상과 에미상을 수상했다. 아마 어릴 적부터 시작한 일이 좋은 밑거름이 돼준 것 같다.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사진을 찍을 때의 순간 판단은 어떻게 하나?** 솔직히 나는 두 눈으로 보는 세상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사진가로서의 능력을 감퇴시키거나 혹은 더 낮게 만든다고 생각진 않는다. 난 난독증이 있어서 오히려 더 예술적인 감각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당대 최고의 아이콘들과 작업해 왔다. 그중에서도 마릴린 먼로에 대한 기억은 특별한가.** 그건 내게 다섯 명의 아이 중 누구 가장 사랑하는지 묻는 질문과 같다. 그들은 각자 다르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마릴린은 사진가로 날 유명하게 만들어줬다. 그녀는 내가 야심이 많은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다. 내게 자만이 지나치면 해고될지 모른단 경고를 날리기도 했다. **마릴린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나?** 마릴린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싶어 했다. <클레오파트라>로 밀리언달러를 벌어들였던 엘리자베스 테일러보다 자신의 실적이 뛰어난 거란 걸 스튜디오에 증명해 보이며 했었다. 그 당시 이슈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채널이 매거진이었다. 누가 몇 개의 매거진 커버를 장식했는지, 몇 개의 인터뷰를 소화했는지가 관건이었다. 프린트물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진은 마릴린의 무기였다. 나는 그녀의 암묵적인 파트너였던 셈이다. **마릴린이 당신의 초창기 커리어를 이끌어주었다. 첫출발은 확실히 그랬다. 하지만 어느 날인가 저속의 나를 쳐다보더니 영글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날 촬영한 사진을 모두 버리고 싶다고 말했다. 대신 그**

ELLEphotography

관능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여자. 시대의
아이콘의 미공개 사진
1백여 점과 이면의
이야기가 담긴 타센
출판사의 <마릴린과 나>.



너는 지금까지 찍었던 스타일과 다른 좀 더 특별한 사진을 요구했다. 결국 그날 찍은 사진은 한 장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 사진들이야말로 그녀를 드러낼 수 있는 완벽한 초상화다. 사실 지난 50년 동안 나조차 그 사실을 잊고 살았지만 <마릴린과 나>의 작업을 위해 밀착 인화지를 뒤적거리다 많은 것들이 기억났다. 그녀가 사망하기 전날 <플레이보이>의 커버 스토리를 의논했다고 들었다. 한 인터뷰에서 당신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그날 따라 마릴린의 기분이 우울하고 언짢아 보였더라면, 그녀의 혼란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나? 그날 아침에 마릴린은 유난히 조용했다. 다만 컨셉트 상의를 하다 혼잣말을 했다. '내가 근사한 건 내 몸 때문인 걸까? 사실 섹스 심벌이니 백치미니 하는 표현은 진짜 그녀의 모습과 어울리진 않는다. 행복에 대한 갈증이 컸기 때문에 자기 삶에 대한 애정과 고민이 많았던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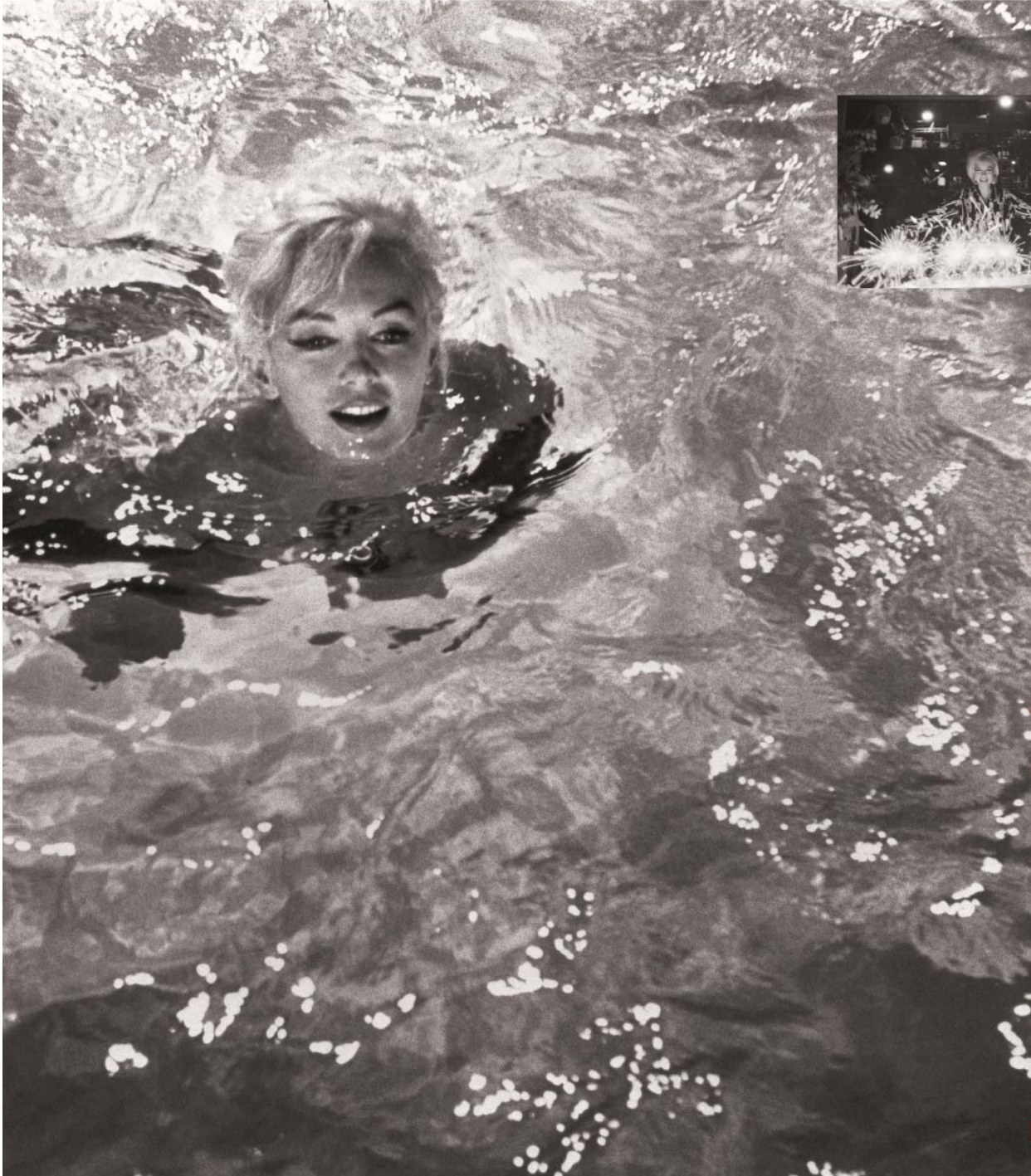
행복에 대한 갈증이 컸기 때문에 자기 삶에 대한 애정과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다. 상처받은 어린아이처럼 투명하고 유리처럼 부서지기 쉬운 사람이었다.

람이다. 누군가 자기를 구원해 주길 기다렸던 것 같다. 상처받은 어린아이처럼 투명하고 유리처럼 부서지기 쉬운 사람이었다. 그런 내적 어둠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 같은가. 마릴린의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했고 아버지는 자살했다. 내 생각에 마릴린은 가족의 유전자를 두려워했던 것 같다. 유산한 뒤엔 불안증이 심해졌다. 자신이 어머니처럼 될까 몹시 걱정했다. 대중에게 보여주는 이미지가 지배적인 수밖에 없는 배우에게 삶 자체만으로도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배우에게는 유명세가 필연이다. 허용되는 자유가 많지 않다. 결국 아무도 없는 어둠, 밤이 안락한 피난처가 되는 셈이다. 마릴린은 전 세계를 주락파락하는 여배우가 되어서도 그토록 벗어나고 싶은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그녀의 비극은 어둠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걸 깨닫는 것에서 시작된 것 같다. 마릴린이 배우가 되어서도 끝없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나? 특히 라이벌이었던 엘리자베스 테일러에게 밀렸지 모른다는 강

박증도 작용했을 것 같은데, 누드 사진을 찍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나. 약간은 그랬던 것 같다. 나와 작업한 직후 마릴린은 버트 스톤(Bert Stern)과 짧게 촬영했다. 그녀는 <라이프>나 <파리 마치> 등의 매거진 커버 촬영으로 패션지의 중심에 서고 싶어 했다. 세계의 주목을 끌고 싶어 했지. 당신이 촬영한 누드 사진 시리즈 <Marilyn 12>는 누구의 결정이었나. 전적으로 그녀의 결정이었다. "내가 수영복을 입고 풀장에 뛰어들었다가 아무것도 안 입고 나오면 어떨 것 같아?" 우린 모두 마릴린이 장난을 치는 거라고 생각했다. 심지어 함께 있던 홍보 담당자 역시 아이없어했을 정도니까. 근데 그 말을 하기가 무섭게 실전에 옮겼다. 처음엔 풀장에 수영복을 입고 들어갔다 '노 브라' 차림으로 나왔다. 두 번째엔 팬티를 돌돌 스타킹처럼 말아 내렸다. 결국엔 아무것도 입지 않은 맨 몸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 모든 과정을 빼놓지 말고 카메라로 찍으라고 지시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나?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주로 셀러브리티의 파파라치 사진이나 찍곤 했다. 내 직업은 말 그대로 사진을 찍는 일이었다.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생각이란 걸 할 여유가 없었다. 캠블링을 하듯 신경을 곤두세운 채 가능한 최고의 찰나를 포착하려고 했지. 일에 있어서는 프로 정신을 발휘해야 했기 때문에 마릴린이 웃을 땀을 흘리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덕분에 막대한 돈을 벌어들일지 모른다고 생각하진 않았나?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 순간적으로 <파리 마치>의 에디터가 소리 지르는 모습이 떠오르긴 했다. 더 솔직히 말해 엄청난 숫자의 달러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했다.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될 건 분명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영화 <사랑할 때 버려야 할 것

1 영원한 아름다움을
꿈꿨던 그녀.
2 <사랑할 때 버려야 할
것들> 촬영장에서서의
마릴린 먼로. 살러가
촬영한 (Marilyn 12)
시리즈 중 한 장면.

1.



2.



ELLEphotography



1.



5.



6.



2.

마릴린은 본능적으로 사진에 대한 감이 좋았다. 그녀가 별로라고 말했던 것들이 나중에 보면 확실히 아니었지. 그녀는 아름다움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3.



4.

1, 2, 4, 5, 6 이브 몽탕과 함께 한 (사랑을 합시다)에서의 그녀. 3 2012년 6월호 (베니티 페어)의 커버를 장식한 마릴린 먼로.

들 Something's got to give)(1962) 현장에서 촬영한 마릴린의 누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모든 걸 보여주는 이미지' 같아서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왜 공개되지 않았지? 도처에 숨겨진 유혹들이 넘쳐났을 텐데! 마릴린이 이 사진들을 버리길 원했다. 난 그대로 휴지통에 버렸고 많은 양의 사진들이 그대로 사장되었다. 후시 (마릴린과 나)에 포함된 사진 중에선 그녀가 승인하지 않았던 것도 있나? 몇 장의 밀착 인화지가 포함돼 있긴 하다. 하지만 그녀가 버리길 원했던 사진들은 절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편집 과정에서 그녀가 살펴봤던 몇 장의 시험 인화지가 발견되었을 뿐이다. 마릴린에 대한 일종의 예우였던 셈이네. 사실 그보단 프로 정신에 입각한 문제였다. 마릴린은 본능적으로 사진에 대한 감이 좋았다. 그때 촬영했던 이미지들을 확대경으로 살펴보면 아름다움에 대한 나의 이해가 부족했던 걸 깨달을 수 있다. 그녀가 별로라고 말했던 것들이 나중에 보면 확실히 아니었지. 그녀는 누구보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잘 이해하고 인정받길 원했다. 지난날을 돌아봤을 때 마릴린과의 일화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사실 아이론 시리즈 작업을 할 때 화가 많이 나 있었다. 딸이 태어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았을 때라 아내가 정말 며칠이라도 함께 있어주었으면 했다. 하지만 마릴린은 전화를 걸어 오밤방 당장 촬영해야 한다고 불러내길 일수였다. 기분이 좋지 않았지. 그런데 한창 사진을 찍고 집에 돌아

와보니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릴린이 아내에게 꽃을 보낸 거였다. 괜히 민망해져서 다음날 마릴린을 보자 "사진으로 돈을 많이 벌어 집을 살 거다"라고 얘기했다. 그러자 그녀

가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반드시 그 집 앞에 작은 표지판을 붙여요. 마릴린이 지어준 집이라고!" 당시 찍은 사진들이 50년 뒤인 2012년 6월호 (베니티 페어)의 커버를 장식할 거란 사실을 예감했었다. 전혀. 사진을 중요하게 만드는 건 '역사'다. 사진가가 아니다. 역사가 어떤 사진을 최고인지 최악인지 결정한다. 중요하다고 평가받던 사진들이 별것 아닌 이미지로 치부되는 건 환상간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여전히 마릴린이 최고인 이유. 매일 똑같은 광산에서 다이아몬드가 채굴되고 원석들이 정교하게 커팅된다.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가 쏟아져 나오지만 제일 처음 만들어진 것과는 다르다. 그 커팅 방법뿐 아니라 원석이 받는 빛조차 똑같지 않다. 마릴린 먼로라는 다이아몬드는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마릴린이니까. 신이 주신 선물이지만, 살아 있을 때 어둠이라는 안식처에 갇혀버린 아름다운 보석. ■

정호준 | 이디오테